

肝勞에 對한 文獻的 考察

A Bibliographic study about Gan Ro (肝勞)

李 敏 燮

I. 緒 論

肝勞에 對한 記錄으로는 B.C 2-3 頃に 쓰여진 黃帝內經에서 "肝藏血 血有餘則怒 不足則恐" 이라 하여 肝勞에 대하여 처음으로 言及한 後 肝勞의 原因을 華²⁾, 孫⁴⁾, 張¹⁰⁾, 陳¹⁶⁾, 韓¹⁹⁾, 吳²¹⁾는 "肝傷"으로 보았고 嚴⁵⁾, 李⁷⁾, 徐¹⁷⁾, 黃¹⁸⁾, 俞²⁰⁾는 "勞力謀慮"로 보았고, 王³⁾, 劉⁶⁾, 樓⁸⁾, 朱¹²⁾, 喻¹⁴⁾는 "肝虛"로 보았고 許¹¹⁾, 金²²⁾, 具²³⁾는 "神損"으로 보았고 徐⁹⁾, 政和¹⁵⁾는 "怒氣逆上"으로 보았다.

肝勞의 증상으로는 王³⁾, 許¹¹⁾, 朱¹²⁾, 孫⁴⁾, 政和¹⁵⁾, 陳¹⁶⁾, 金²²⁾, 具²³⁾는 "面目乾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王³⁾, 許¹¹⁾, 朱¹²⁾, 政和¹⁵⁾, 陳¹⁶⁾, 金²²⁾, 具²³⁾는 "口苦"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王³⁾, 許¹¹⁾, 朱¹²⁾, 孫⁴⁾, 陳¹⁶⁾, 金²²⁾은 "目視不明"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劉⁶⁾, 樓⁸⁾, 秦¹³⁾, 喻¹⁴⁾, 徐¹⁷⁾는 "筋緩不能自收持"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王³⁾, 朱¹²⁾, 政和¹⁵⁾, 陳¹⁶⁾은 口苦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王³⁾, 朱¹²⁾, 政和¹⁵⁾, 陳¹⁶⁾은 "恐畏不能獨臥"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李⁷⁾, 黃¹⁸⁾, 金²¹⁾, 具²²⁾는 "筋骨拘攣"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李⁷⁾, 黃¹⁸⁾, 金²¹⁾, 具²²⁾는 "頭目昏眩"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許¹¹⁾, 孫⁴⁾, 金²¹⁾, 具²²⁾는 "頻頻下淚"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華²⁾, 樓⁸⁾, 陳¹⁶⁾은 "恐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黃¹⁸⁾, 金²²⁾, 具²³⁾는 脇痛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徐⁹⁾, 韓¹⁹⁾, 吳²¹⁾는 "面無血色"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韓¹⁹⁾, 吳²¹⁾는 "筋緩"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徐, 吳는 "目暗"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金²¹⁾, 具²²⁾, 許¹¹⁾는 關格不通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華²⁾, 樓⁸⁾는 "面青"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政和¹⁵⁾, 張¹⁰⁾은 "毛悴色夭"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樓⁸⁾, 徐¹⁷⁾는 "目昏"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嚴⁶⁾은 "驚悸", "心煩", "自汗", "面白目枯"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政和¹⁵⁾는 "筋急"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孫⁴⁾은 "目暝", "瞳人痛", "手足青"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徐¹⁷⁾는 "脅肋刺痛"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樓⁸⁾는 "筋脈拘攣"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本人은 <黃帝內經> 外 23 種의 歷代 文獻의 內容을 통하여 虛勞 中 肝勞의 原因과 症狀에 대하여 文獻의 考察을 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調查 資料 및 研究 方法

1. 調查 資料

《黃帝內經》以後의 文獻 23種을 對象으로 調查 研究하였다.

2. 研究方法

《黃帝內經》으로 부터 現代까지의 文

獻을 時代別로 調査하여 肝勞의 原因
 症狀을 研究 整理하여 보았다.

調 查 資 料

- 1) 黃帝 內經
- 2) 中藏經 : 華 佗
- 3) 外臺秘要 : 王 焘
- 4) 千金方 : 孫思邈
- 5) 濟生方 : 嚴用和
- 6) 六書 : 劉完素
- 7) 醫學入門 : 李 梈
- 8) 醫學綱目 : 樓 英
- 9) 古今醫統 : 徐春甫
- 10) 景岳全書 : 張介賓
- 11) 東醫寶鑑 : 許 浚
- 12) 普濟方 : 朱 肅
- 13) 難經 : 秦越人
- 14) 醫門法律 : 喻 昌
- 15) 聖濟總錄 : 政和奉勅勅
- 16) 醫書七十二種 : 陳修園
- 17) 仁濟志 : 徐有傑
- 18) 醫宗損益 : 黃度淵
- 19) 醫方新鑑 : 韓秉璉(韓錫元校閱)
- 20) 鄉藥集成方 : 俞孝通 外
- 21) 惠庵醫方 : 吳得泳
- 22) 診療要鑑 : 金定濟
- 23) 東醫心系內科 : 具本泓 外

Ⅲ. 本 論

- 1) 黃帝內經
 肝藏血, 血有餘則 怒不足則恐
- 2) 中藏經
 起居迂 度則 傷肝
 肝絕汗出如水恐懼不安伏臥目直面青者
 八日死又日即時死

3) 外臺秘要
 肝勞病者補心氣以益之心旺則感於肝矣
 人逆春氣則 足少陽不生而 肝氣內變順
 之則生逆之則死
 順之則治逆之則亂反順爲逆是謂關格病
 則生矣
 所以肝恐不止則傷精精傷則面離色目青
 盲而無所見毛悴色夭死於秋
 肝勞者面目乾黑口苦精神不守恐畏不能
 獨臥目視不明

4) 千金要方
 肝傷人脫肉又臥 口欲得時時 手足青
 目暝瞳人痛此爲肝臟傷所致也
 肝勞病者 補心氣以益之 心旺則感於肝
 人逆春氣則足少陽不生而肝氣內變
 順之則生逆之則死順之則治逆之則亂反
 順爲逆是謂關格病則生矣

5) 濟生方
 面白目枯口苦自汗心煩驚悸
 勞力謀慮成肝勞

6) 六 書
 筋緩 不能自收持

7) 醫學入門
 肝勞盡力謀慮則筋骨拘攣極則頭目昏眩

8) 醫學綱目
 肝虛目昏筋脈拘攣面恐懼如人將捕之狀
 筋緩不能自收持

9) 古今醫統
 怒多而火盛淚外泄而目昏或肋刺痛筋備
 不能 久立 遠行

10) 景岳全書

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妄不精不精則不正當
人陰縮而筋變兩脇骨不變毛悴色夭死於秋

11) 寶鑑

面目乾黑精神不定不能獨目視不明瀕瀕下淚
肝勞則脇痛關格不痛
肝損面目 血色 筋緩目暗

12) 普濟方

面目乾黑口苦精神不守恐畏不能獨臥目視不明
肝家虛則筋攣目眩，勞力謀慮成肝勞

13) 難經

筋緩不能自收持

14) 醫門法律

筋緩不能自收持

15) 聖濟總錄纂要

患怒氣逆上而不下則傷肝肝勞則面目乾黑口苦精神不守
恐畏不能獨臥甚則筋急而瓜枯目盲無所見毛悴色夭者亂治

16) 陳修園醫書 七十二種

面目乾黑，口苦 精神不守恐懼不能獨臥目視不明

17) 仁濟志

筋緩不能自收持，面無血色筋緩目暗

18) 醫宗損益

盡力謀慮為虛勞筋骨拘攣極則頭目昏眩脇痛

19) 醫方新鑑

虛勞肝損面無血色筋緩

20) 鄉藥集成方

盡力謀慮勞傷肝

21) 惠庵醫方

虛勞肝損面無色筋緩目暗

22) 診療要鑑

神損，面目乾黑精神不安不能獨臥視力不明頻頻下淚
筋骨拘攣脇痛 關格不通 頭目昏眩

23) 東醫心系內科學

神損，面目乾黑 精神不安不能獨臥 視力不明頻頻下淚
筋骨拘攣脇痛關格不通頭目昏眩

肝勞之 原因

原 因	肝 虛	勞力謀慮	肝 傷	怒氣逆上
書 名				
黃帝內經				
中藏經			○	

外臺秘要	○			
千金方			○	
濟生方		○		
六書	○			
醫學入門		○		
醫學綱目	○			
古金醫統				○
景岳全書			○	
東醫寶鑑		神 損		
普濟方	○			
難經				
醫門法率	○			
聖濟總錄纂要				○
醫書七十二種			○	
仁濟志		○		
醫宗損益		○		
醫方新鑑			○	
鄉藥集成方		○		

惠庵醫方			○	
診療要鑑		神 損		
東醫心系內科學		神 損		

肝 癆 斗 症 狀

症 狀 書 名	面目 乾黑	口苦	精神 不守	驚悸	恐懼	心煩	自汗	恐畏不 能獨臥	目視 不明
黃帝內經					○				
中藏經									
外臺秘要	○	○	○					○	○
千金方									
濟生方				○		○	○		
六書									
醫學入門									
醫學綱目					○				
古今醫統									
景岳全書									
寶鑑	○								○
普濟方	○	○	○					○	○

難經									
醫門法律									
聖濟總錄纂要	○	○	○					○	
醫書七十二種	○	○	○		○			○	○
仁濟志									
醫宗損益									
醫方新鑑									
鄉藥集成方									
惠庵醫方									
診療要鑑	○		○						
東醫心系內科學	○		○						

書名	症狀	筋緩不能者 收持	筋緩	筋骨 拘攣	筋急	頭目 昏眩	目暗	目暝	關格 不通	面青	瞳人痛
黃帝內經											
中藏經										○	
外臺秘要											
千金方							○				○
濟生方											

六書	○									
醫學入門			○		○					
醫學綱目	○								○	
古今醫統										
景岳全書								○		
寶鑑										
普濟方										
難經	○									
醫門法律	○									
聖濟總錄纂要					○					
醫書七十二種										
仁濟志	○						○			
醫宗損益			○		○					
醫方新鑑			○							
鄉藥集成方										
惠庵醫方			○				○			
診療要鑑			○		○				○	
東醫心系內科學			○		○				○	

書名	症狀 脇肋 刺痛	脇痛	手足青	面無 血色	面白 目枯	頻頻 下淚	毛悴 色夭	筋脈 拘攣	目昏
黃帝內經									
中藏經									
外臺秘要									
千金方			○						
濟生方					○				
六書									
醫學入門									
醫學綱目								○	○
古今醫統	○								○
景岳全書							○		
寶鑑						○			
普濟方									
難經									
醫門法律									
聖濟總錄纂要							○		
醫書七十二種									
仁濟志				○					

醫宗損益		○							
醫方新鑑				○					
鄉藥集成方									
惠庵醫方				○					
診療要鑑		○				○			
東醫心系內科學		○				○			

IV. 考 察

肝은 人體의 重要한 腸器中의 하나로써 本性은 岡急하고 好動하는 것이 特徵인데 이에 關하여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肝者 將軍之官謀慮出焉"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肝臟이 勇敢한 決斷性을 出焉하므로 將軍에 비유한 것이며 潛伏하여 末期에 發動하므로 謀慮를 案出한다고 하였다. <甲乙經>에서는 "五臟六腑肝爲之將"이라 하여 肝의 機能과 形象을 마치 將軍의 職責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韓醫學的으로 본 肝의 主要機能은 "肝藏血"과 "肝主疏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體는 陰이고 用은 陽이라는 뜻이다. 清代의 醫家 沈金鷺는 "肝和則 氣生 發育萬物爲諸臟之生化"라 하였는데 이는 肝이 血量을 調節하고 음식물의 消化吸收를 촉진함으로써 肝臟機能 自體를 調和롭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臟腑의 정상적인 활동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靈樞師傳篇>에서는 "肝者主爲將使之候外"라고 하여 肝에는 "抗邪"의 기능도 있음을 설명해 주

고 있다.

肝의 經脈은 陰器를 돌아서 少腹을 지나 胃를 끼고 올라가 肝에 속하고, 단에 終하며 다시 膈을 뚫고 올라가서는 脇肋과 兩乳에 分布하며, 위로는 目系와 이어지면서 肝과 단이 表裏의 關係를 이루기 때문에 上述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病證은 모두가 肝經의 病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說明한것이 韓醫學에서 본 肝인데 肝勞는 韓醫學的으로 五臟의 勞病中 하나이며 神損을 말하는데 傷肝하여 肝氣나 肝血에 이상을 초래하여 筋이나 面目 등에 病變을 일으키는 것을 總括한다.

1. 肝勞의 原因에 對한 考察

<黃帝內經> 以後 種의 文獻을 調查研究하여 本 결과 肝勞의 原因을 <中藏經><千金要方><景岳全書><醫書七十二種><醫方新鑑><惠庵醫方>의 六種의 문헌에서는 "肝傷"로 보았고 <外臺秘要><六書><醫學綱目><普濟方><醫門法率>의 五種의 문헌에서는 "肝虛"로 보았고 <濟生方><醫學入門><仁濟志><醫宗損益><鄉藥集成方>의

五種 문헌에서는 "勞力謀慮"로 보았고<寶鑑> <診療要鑑> (東醫心系內科學)의 三種 문헌에서는 "神損"으로 보았는데 "神"은 人間의 精神 思惟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건전한 精神 思惟 활동은 肝에 損傷을 주지 않으나 忿怒라던가 抑鬱 등 건전하지 못한 精神 思惟 활동은 肝에 損傷을 입히거나 神에 손상을 주게된다.<古今醫統> <聖濟總錄纂要>의 二種 文獻에서는 "怒氣逆上"으로 보았다.

2. 肝勞의 症狀에 對한 考察

<外臺秘要> <寶鑑> <普濟方> <聖濟總錄纂要> <醫書七十二種> <診療要鑑> <東醫心系內科學>의 七種 文獻에서는 肝勞의 증상이 "面目乾黑"이 나타난다 하였고 <外臺秘要> <寶鑑> <普濟方> <聖濟總錄纂要> <醫書七十二種> <診療要鑑> <東醫心系內科學>의 七種 文獻에서는 "精神不守"가 나타난다 하였고 <外臺秘要> <寶鑑> <普濟方> <千金翼方> <醫書七十二種> <診療要鑑>의 六種 文獻에서는 "目視不明"이 나타난다 하였고 <外臺秘要> <普濟方> <聖濟總錄纂要> <醫書七十二種>의 四種 文獻에서는 "口苦"가 나타난다 하였고 <普濟方> <聖濟總錄纂要> <醫書七十二種>의 四種 文獻에서는 "恐畏不能獨臥"가 나타난다 하였는데 "恐"이란 것은 肝氣가 虛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醫學入門> <醫種損益> <診療要鑑> <東醫心系內科學>의 四種의 文獻에서는 "筋骨" 拘攣이 나타난다 하였고, <醫學入門> <醫種損益> <診療要鑑> <東醫公系內科學>의 四種 文獻에서는 "頭目昏眩"이 나타난다 하였고 <寶鑑> <千金翼方> <診療要鑑> <東醫公系內科學>의 四種 文獻에서는 "頻頻下淚"가 나타난다 하였고 <中藏經> <醫學綱

目> <醫書七十二種>의 三種 文獻에서는 "恐懼"가 나타난다 하였고 <醫宗損益> <診療要鑑> <東醫心系內科學>의 三種 文獻에서는 "關格不通"이 나타난다 하였고 <醫宗損益> <診療要鑑> <東醫心系內科學>의 三種 文獻에서는 "脇痛"이 나타난다 하였고 <仁濟志> <醫方新鑑> <惠庵醫方>의 三種 文獻에서는 "面無血色"이 나타난다 하였고 <醫方新鑑> <惠庵醫方>의 三種 文獻에서는 "筋緩"이 나타난다 하였고 <仁濟志> <惠庵醫方>의 二種 文獻에서는 "目暗"이 나타난다 하였고 <中藏經> <醫學綱目>의 二種 文獻에서는 "面青"이 나타난다 하였고 <景岳全書> <聖濟總錄纂要>의 二種 文獻에서는 "毛悴色夭"가 나타난다 하였으며 <醫學綱目> <古今醫統>의 二種 文獻에서는 "目昏"이 나타난다 하였고 <醫學綱目> 에서는 "筋脈拘攣"이 <濟生方>에서는 "自汗" "心煩" "驚悸" "面白目枯"가 <千金要方>에서는 "手足青, 瞳人痛, 目瞑"이 <古今醫統>에서는 "脅肋刺痛"이 각각 나타난다 하였다.

V. 結 論

以上 23 種의 文獻을 고찰하여 본 結果 肝勞의 原因에 있어서

- 1) "肝傷"이 (6/23) 26.09%로 가장 많았고
- 2) "勞力謀慮"와 "肝虛"가 각각 21.74% (5/23)로 두번째 였으며
- 3) "神損"이 (3/23) 13.04% "怒氣逆上"이 (2/23) 8.70% 順이었다.

肝勞의 症狀에 있어서는

- 1) "面目乾黑"이 (8/23) 34.79%로 가장

많았으며

- 2) "精神不守"가 (7/23) 30.43%로 두 번째였으며
- 3) "目視不明"이 (6/23) 20.09%
- 4) "筋緩不能自收持"가 (5/23) 21.74%였다.

以外에도 다른 여러가지의 증상들이 있었으나 顔度數가 낮아 除外하였다.

參 考 文 獻

- 1) 黃帝內經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民國七十五年 P 408
- 2) 華佗 : 中藏經 (醫部全錄卷十二 虛勞門一)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11
- 3) 王 焘 : 外臺秘要 (中國醫學大系卷4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555
- 4) 孫思邈 : 千金要方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13 虛勞門一
- 5) 嚴用和 : 濟生方 (中國醫學大系卷25)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624
- 6) 劉完素 : 六書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17 虛勞門一
- 7) 李 梈 : 醫學入門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27 虛勞門二
- 8) 樓 英 : 醫學綱目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33 虛勞門二
- 9) 徐春甫 : 古今醫統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35 虛勞門二
- 10) 張介賓 : 景岳全書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55 虛勞門三
- 11) 許 浚 : 東醫寶鑑, 大成出版社 서울 1984年 卷4]P444
- 12) 朱 橧 : 普濟方 (中國醫學大系卷15)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354
- 13) 秦越人 : 難經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 7 虛勞門一
- 14) 喻 昌 : 疑問法律 (醫部全錄卷十二) 中國通俗圖書刊行社. 臺北 1976年 P43 虛勞門三
- 15) 政和奉勅勅: 聖濟總錄纂要 (中國醫學大系卷 7)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271
- 16) 陳修園 : 陳修園醫書 七十二種,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中華民國七十四年 P1382
- 17) 徐有傑 : 仁濟志 (韓國醫學大系卷45)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79
- 18) 黃度淵 : 醫種損益 (韓國醫學大系卷26)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62
- 19) 韓秉璣 : 醫方新鑑 (韓國醫學大系卷29) 麗江出版社 서울 1988年 P 989
- 20) 俞孝通外2人: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卷 3) 麗江出版社 서울 1988년
- 21) 吳得泳 : 惠菴醫方 醫葯社 서울 1978年 P 208
- 22) 金定濟 : 診療要鑑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74年 P609-617
- 23) 具本泓外 4人 : 東醫公系內科 書苑堂 서울 1987年 P112

A B S T R A C T

A Bibliography Study About Liver Exhaustion

Lee Min Seop
Department of Respirator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 Kw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Han Sang Wh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23 references, the orders in the cause of Liver - Exhaustion (肝勞) were as follows;

- 1) Liver - damage (肝傷) was the most abundant by occupying 26.09% (6/23)
- 2) Trouble - resources - prudence (勞力謀慮) and Liver - deficiency (肝虛) were the second by occupying each 21.74% (5/23).
- 3) Spirit - damage (神損) was 13.04% (3/23) and Anger-counter - up (怒氣逆上) was 8.70% (2/23).

The Orders in the cases of Liver - exhaustion (肝勞) were as follows;

- 1) Dry - dark - countenance (面目乾黑) was the most abundant by occupying 34.79% (8/23).
- 2) Spirit - unstableness (精神不守) was the second by occupying 30.43% (7/23)
- 3) Sight - unclearness (目視不明) was 20.09% (6/23)
- 4) Muscle relaxation not maintained by oneself (筋緩不能自收持) was 21.74% (5/23)

Other various cases were excepted because of low frequency.